

이시카와현립미술관

이시카와현립미술관은 이시카와 미술공예의 정교함과 다양성을 보여주며,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 4,000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. 국보 1 점을 상설 전시하며, 중요문화재 7 점을 비롯해 이시카와 출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.

이시카와현립미술관은 전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방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. 1959 년에 겐로쿠엔에 인접한 청초한 분위기의 건물이 처음 세워졌으며, 이후 1983 년에 녹음이 풍부한 가나자와의 문화지구 중심에 현재의 건물이 개관했습니다.

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는 상설전과 기획전을 합쳐 항상 약 250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전시품에는 구타니야키, 가가유젠, 가가마키에 칠기 등 이시카와현을 대표하는 공예기술과 양식을 소개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경전, 마에다가문의 도검과 마구 등 이시카와의 역사적인 고미술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 조몬 시대(기원전 1 만 년경~기원전 300 년경)의 토기부터 21 세기의 유화와 사진에 이르는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의 컬렉션은 2000 년 이상에 걸친 이시카와 문화유산의 변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